

충남도, 저소득 15만 명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

코로나19 장기화 긴급처방

1500억 규모...道·시·군 반씩 부담
4월 현금, 지역화폐 등 선택지급

“충남도가 최후 버팀목 되도록”
소상공인, 운수, 비정규직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대상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달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으로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해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

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원이다. 총 소요 예산 1500억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시기는 4월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 20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각 시·군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경 편성을 진행한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군과 힘을 모아 민생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충남도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39

/도정신문팀

<관련기사 3, 4, 10면>



코로나 19에도 봄은 온다 '뻐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했던가.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지만 산천에는 어느덧 봄이 한창이다. 사진은 20일 춘분을 맞아 천리포수목원을 찾은 상춘객이 활짝핀 삼지닥나무 꽃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심신을 꽃을 보며 달래고 있다. 사진/천리포수목원 제공

2831ha에 673만 그루 심어 미세먼지 잡는다

목재자원 공급기반 구축

밀원수 등 양봉 경제림 식수 미세먼지 저감 나무도 조림

충남도가 목재자원 공급기반 구축과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263억 원을 투입해 2831ha에 총 673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편백나무 4500그루를 보령시 웅천읍에 식재한 데 이어 내달 20일까지 15개 시군에

서 일제히 나무심기를 실시한다.

도는 목재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리기다소나무와 잡목숲을 친환경으로 벌채한 후 2000ha에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편백나무 등 13종 600만 그루를 심는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산불과 소나무재선충피해지 등 복구와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 454ha에 59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

특히 양봉산업 활성화와 산림자원화를 위해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수특화림’ 조성을 위해 265ha의 산림에 경관수 10만 그루를 식재한다. 이와 함께 도시 내·외곽 산림, 미립목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 근교를 중심으로 112ha에 4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미세먼지저감조림’ 사업도 실시한다.

이상춘 도 산림지원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산림자원조성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과041-635-4507

도, 영유아 카시트 7800개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지원



충남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용품 지원한다.

도는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해 기초생활 수급 가정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신생아용(바구니형) 카시트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수는 증가(60%) 추세로 이 중 3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 수준인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총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7800개 카시트를 2명 이상 다자녀 가정(7350개·94%)과 저소득층 가정(450개·6%)에 지원할 계획이다.

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을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 중 출생한 신생아는 소급해 신청 받아 4월부터 지급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신생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안전띠 매기 운동과 같이 준법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상호 협업, 안전용품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13세 미만 아이가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안전정책과 041-635-2171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해양新산업 기폭제다

| 도정 톨아보기

홍성~서울 40분 고속 신경망 서해 해양산업, 혁신도시 잇는 환황해권 도약 위한 플랫폼

충남도가 제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대한민국 해양신산업을 촉진시키는 기폭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의 근접거리 7.5km를 연결시켜 新 서해-수도권 KTX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초고속 신경망이다. 서해의 지도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충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 황해중심지 등 KTX 고속철도망에 쏠리는 이유는 무릇 크다.

충남지역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 것도 단견이다. 서해선 복선전

철 구간을 확장하면 보령-군산-익산까지 중심이 깊어진다. 서해 KTX 고속철은 해양신산업의 촉진시킬 쾌속정 역이다.

충남도가 대한민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해양생태복원, 해양레저관광 등 충남형 해양신산업과 맞닿아 있다. 또한 법 조항에 없었던 해양치유 관련 법률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독일과 일본처럼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터다. 무궁무진한 서해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발현된 결실이다.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작년 12월 상생과 공존의 바다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기재부 재정평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뿐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충남의 혁신도시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충남

서해를 중심도시 육성에도 탄력이 붙었다. 환황해 권 중심으로 도약할 충남 혁신도시가 형성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로써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거대 인프라를 연결하고 촉진시킬 플랫폼이 된다. 홍성-용산이 40분대 주파가 가능해진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권의 KTX 접근권 격차도 상당히 극복될 것이다. 그동안 충남 서해 지역은 서울 수도권에서 100-200km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장항까지는 부산과 비슷한 3시간 이상 걸려 거리감이 컸다.

다시 말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충남형 해양신산업, 혁신도시 촉진, 낙후된 서해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법 큰 그림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실시계획과 시공 등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한다. 절묘한 시점에 적척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新 서해~수도권 KTX 구축에 힘 모은다

서울~장항 200km 거리 불구
부산 목포 처럼 3시간은 불합리

홍성~서울 용산 40분 목표로
서해선~경부선 근접 75km 연결

보령 홍성 중심 15명 TF팀 꾸려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총력

충남도가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의 근접거리 75km를 연결시켜 新 서해~수도권 KTX 구축에 역량을 결집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 4575억 원이 소요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추진하려는 서해 KTX고속철도망은 용산역-광명역-화성 향남면-평택 청북면-홍성-대전-군산-익산을 잇는 218km 구간으로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야 한다.

연결 구간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와의 최단거리인 평택 청북면-화성 향남면 75km 구간의 선로를 연결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방안이다.

충남도는 18일 서해안에서 수도권을 잇는 KTX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보령시·홍성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등 총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TF팀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서해 KTX고속철도망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올 연말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충남 서해지역은 서울 수도권에서 100-200km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장항까지는 3시간 이상 걸려 부산, 목포 등과 시간적 거리가 동일해 소외감을 불러 왔다.

도 관계자는 "KTX가 연결되면 서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92

도정만평

설인호



충남도 상징물 '참매' 방사

꾸준한 치료·재활 거쳐 건강 회복

충남도의 상징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인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도는 17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함께 천안과 금산 지역에서 구조한 참매 2마리를 자연 방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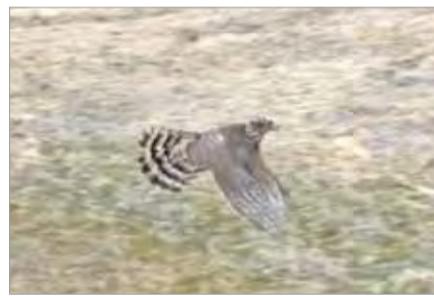
이번에 방사한 참매는 총 2마리로 지난해 9월 천안 서북구 성거읍, 12월 금산 군북면에서 각각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참매는 발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비롯한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4개월에 걸친 치료에도 왼발가락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방사 시 자연에서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치료와 비행 훈련으로 6개월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또 금산 군북면에서 발견된 참매는 유리창 충돌로 아랫부리가 골절돼 구조 이후 3개월간 부리 유합술 등 치료·재활을 진행했다.

지난해 구조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종 300건을 포함해 전년 대비 36% 증가한 1596건을 기록했고, 사고 유형은 차량·건물 등 충돌이 631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야 447건(28.1%), 인공구조물 침입·고립 129건(8.0%) 등의 순이었다.

●기후환경정책과041-635-4416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든다

노동정책 정기회의 열어

노동친화적 환경 점검 논의

충남도는 2020년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주일 위원장과 노동정책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운영 방안 등도 논의했다.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의 문제는 삶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수립됐다.

향후 노동정책협의회는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취약 근로자 권리 보호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사업 확대 ▲노동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 ▲노동 정책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사용자 역할 확립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취약계층 노동자 교육, 상담 및 권리 구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노동정책과041-635-3413

세 가지 보물 간직한 삼시도

충남이 품은 섬 이야기

⑦ 보령 삼시도

울창한 해송이 드리워진 해변

백사장은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

운치 좋은 황금소나무는 보물

삼시도에는 243가구 419명이 거주한다. '삼시도'(插矢島)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살(矢)을 꽂아놓은(插) 활처럼 생겼다고 한다.

충청도에서는 안면도, 원산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섬이다. 보령시에서 대천항 서쪽으로 13.2km, 태안반도와 안면도에서 남쪽으로 6km쯤 떨어져 있으며 대천항에서 하루에 세 번 운행되는 여객선으로 약 1시간 거리다. 여객선이 닿은 선착장은 '윗마을'

이라고 불리는 '솔뫼선착장'으로 섬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배가 닿은 경사제는 방파제 오른쪽 내해

쪽에 위치한다. 이 선착장은 맞은편에 긴 방파제인 북방파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래해변이 있다. 경사제에는 물양장이 있지만 그 뒤로 야산이 있어 맞은편 방파제

에 갈 수는 없다. 북방파제 역시 사람이 드나들기는 힘든 구조다. 그런데 이곳은 도로명 주소에 의하면 '삼시도 1길' 끝자락이다. 선착장에는 건물 한 채가 있고 대형 닻들이 몰려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타면 왼쪽으로 경사제가 있다. 여기서 남쪽을 바라보면 해변이 반원형 형태로 길게 이어진다.

삼시도는 배가 기항하는 곳이 두 군데다. 물때에 따라 배가 두 곳에서 기항한다는 것이다.

즉 물때에 따라 선착장이 다르다(솔뫼선착장과 밤섬선착장). 거멀머해수욕장은 길이 약 1.5km

의 넓은 백사장을 따라 울창한 해송 숲이 드리워진 해변이다. 백사장에는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물고기가 보일만큼 투명하다. 해송 숲은 모래가 가늘어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성된 사방림이다.

또한 이곳은 삼시도에서 가장 바람이 거세게 분다.

거멀머해수욕장 남쪽에 있는 길이 100m쯤의 갯바위지대를 통과하면 진머해수욕장이 나온다. 이곳은 삼시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다.

해수욕장을 걸어 남쪽으로 걸어 가다 끝 지점에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길로 해서 나오면 바로 삼거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발

길을 돌리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다. 내리막길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마을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농경지가 차지하고 있다.

삼시도에 숨겨진 보물 물방터 약수는 썰물이 되기 전까지는 바다 속에 잠겨 있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약수터다. 바위틈에 고인 물을 떠서 마셔보면 몸속으로 그윽하게 퍼져드는 맛이 일품이다. 물방터 입구에서 직진하면 '황금곰솔'로 이어진다. 운치 좋은 숲길이 이어진다.

이곳이 삼시도의 마지막 보물인 황금곰솔이라는 것이다. '황금소나무'는 염록소가 없거나 적어서 생기는 특이한 현상으로 소나무의 변종이다.

이 섬에서는 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조개잡이가 가능하다. 밀물 때는 물밑을 보면 조개를 볼 수 있어 주울 수 있고, 썰물 때는 무작정 모래 밑을 파면서 조개잡이를 할 수 있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하늘에서 본 삼시도

코로나19 '무료 진단' 대상은?

의사환자·유증상자만 해당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은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만 해당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를 토대로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37.5℃ 이상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다.

도내 선별진료소는 천안 9곳, 아산 4곳, 서산 3곳 등 총 43곳에 달하고 있다.

●보건정책과041-635-4305

경제 살리기 총력... '소상공·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

충남도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지역 경제 활력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힘을 보태는가 하면,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상황TF', 피해 모니터링
방역정보 공유 등 타 시·도와 협력
소상공인 등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경영위기 지원 전문가 컨설팅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지원

도는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 경제 상황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한 데 모았다. 소상공·기업지원반, 산업대책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TF 팀은 분야별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도내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내 타 시·도와 협력을 통해 방역 정보 공유, 감염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등을 강화했다.

그 결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과 관광객 감소, 인력감축 등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자동차부품사·수출기업 피해 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회보험료 122억→410억 증액 광폭 지원

도는 먼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악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비 투숙객 47% 감소, 관광객 47.3% 감소 등 관광·음식숙박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5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마주한 도내 소상공인 15만 명에게 1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충남시사신문 제공

| 충남형 소상공·기업 맞춤형 지원책 | | |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10만여 명) 운수업체 종사자 6000여 명 저소득층·특수형태근로자 등 4만 5000여 명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 | |
| 지원방안 |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가구당 100만 원) ▲1·2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350억 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사회보험료 지원 410억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경영위기 극복 전문가 컨설팅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긴급 경영안정자금 609억 원 (업체당 제조업 3억·기술혁신형 5억 이내) ▲수출위기극복협의회 운영 -수출기업 피해 사례조사 접수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계획 수립 -신용보증 매출채권 보험료 60% 원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거래선 다변화 </td> </tr> </table> |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가구당 100만 원) ▲1·2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350억 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사회보험료 지원 410억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경영위기 극복 전문가 컨설팅 | ▲긴급 경영안정자금 609억 원 (업체당 제조업 3억·기술혁신형 5억 이내) ▲수출위기극복협의회 운영 -수출기업 피해 사례조사 접수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계획 수립 -신용보증 매출채권 보험료 60% 원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거래선 다변화 |
|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가구당 100만 원) ▲1·2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350억 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사회보험료 지원 410억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경영위기 극복 전문가 컨설팅 | ▲긴급 경영안정자금 609억 원 (업체당 제조업 3억·기술혁신형 5억 이내) ▲수출위기극복협의회 운영 -수출기업 피해 사례조사 접수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계획 수립 -신용보증 매출채권 보험료 60% 원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거래선 다변화 | |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10만여 명) ▲운수업체 종사자(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 94개 업체 6000여 명)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4만 5000여 명)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1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규모는 업체당 자금 5000만 원으로,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 부담금리 지원(도 2%) 등을 골자로 한다. 150억 원에 달하는 2차 지원도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회보험료 지원규모도 122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

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어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지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영업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산시와 함께 '경영위기 지원 컨설팅'을 마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휴업 등 소상공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조정과 고용유지 지원금(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 원) 신청을 도왔다.

중소·수출기업 꼼꼼한 지원 강구

긴급 경영안정자금 609억 수월

도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의 부정적 요인 차단을 목적으로 수출유관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적으로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입에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 적극 힘을 실어줬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609억 원으로, 업체당 지원규모는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이 3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5억 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기업과 관련해서는 ▲수출위기극복협의회 구성·운영 ▲수출기업 피해 사례조사 접수 창구 운영 ▲도내 수출기업 현장 방문 실시 등을 통해 피해를 파악하고 사례별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내 자동차 분야의 경우 국내 완성차는 이동 중이나 소비 위축 및 생산량 감소로 부품기업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계획'을 수립, 신용보증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 접수창구 운영 및 피해기업 조사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지원을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품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한 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인도나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통상국 다각화로 수출액의 30%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 중국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충남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위축에 대응해서는 기업별로 접수창구 운영, 도-충남테크노파크 대응 TF 가동, 연구개발 과제 수행 지원 창구 운영 등을 추진, 자동차 부품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모델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경제침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상반기 내 3조 8020억 원의 도 예산을 신속 집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납부금 분납,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업발생증가 등 고용 위축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추가 발굴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박람회 등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도 펴기로 했다.

도는 지역 경제침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상반기 내 3조 8020억 원의 도 예산을 신속 집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납부금 분납,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업발생증가 등 고용 위축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추가 발굴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박람회 등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도 펴기로 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충남도, 코로나19 추경 902억 긴급 편성 4월 지출

소상공인·실직자·운수업 생계비
생존권 위협 받는 취약계층 초점
시군 방역장비, 선별진료소 지원

충남도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안을 담은 올해 추경 추경 규모는 90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도 전체 예산은 당초 7조 7836억 원에서 7조 8738억 원으로 902억 원 늘어난다.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160억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에 760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은 도비 760억 원과 함께 15개 시·군비 740억 원을 투입해 총사업비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한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6억 원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7억 9000만 원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억 ▲의료원 운영비 5억 ▲코로나19 확진 진단 분석 장비 및 진단 꾸러미(kit) 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추경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2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억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13억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 7000만 원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9억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26일 상임위를 거쳐 27일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는 이번 긴급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예산담당관 041-635-3154

충남도, 코로나19 추경 주요 예산안

- ▲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 ▲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160억
- ▲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 ▲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 ▲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
- ▲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 원
-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6억 원
- ▲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7억9000만 원
- ▲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억
- ▲ 코로나19 확진 진단 분석 장비 및 진단 꾸러미(kit) 구입비 3억 5000만 원

“문제는 경제야”...지역 건설경기 부양해 코로나19 극복 전력

도,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 방침
단독·공동, 하도급률 상향 강화
올 1억 넘는 공사 발주 1조1000억

올해 1억 원 이상 도 및 시·군 발주 건설 공사과 용역 금액이 지난해보다 24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공공부문 발주계획을 적극 공유, 지역 업체의 공사·용역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와 용역은 1005건 1조 10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87건 8591억 원보다 118건 2432억 원 증가한 규모다.

도 발주 공사·용역은 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자연놀이뜰 건립, 천안 지식산업센터 신축,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KTX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 개량,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218건 3439억 원이다.

시·군은 787건 7584억 400만 원으로, ▲천안시 105건 1497억 ▲홍성군 56건 884억 ▲아산시 93건 784억 ▲서산시 97건 671억 ▲부여군 41건 613억 등의 순이다.

시·군 신규 건설공사로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증축 ▲보령 셋개포구 명소화 조성 사업 ▲아산 충남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축 ▲서산 수석동 뚝방 조성 ▲논산 탐정호 수변생태공간 관광 명소화 사업 ▲부여 사비공예창작지구 기반 조성 ▲청양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홍성 속동전망대 복합레저시설 조성 ▲예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태안 UV랜드 조성 사업 본공사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 업체 단독·공동도급률,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정책과041-635-4625

/도정신문팀



코로나19 방역준비 완료 23일 충남도 자율방재단(도 연합회장 신용배) 회원들이 서천군의 한 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소독 작업에 앞서 방역 작업을 숙지하고 있다. 도내 6633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다.

충남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사업 3개 선정

32억 규모...4차산업 대응 발판
반도체공정, 2차전지 검사시스템
IoT 자동차 디지털 키 시스템 등

충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사업 지원 사업’에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 기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3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재 강소 소프트웨

어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반 신규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 하는 게 골자다.

선정된 과제는 ▲2차 전기 외형 검사를 위한 차세대 머신비전 시스템 및 지능형 머신비전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검증용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OHT(반도체조립공정 설비) 상용화 ▲IoT기반 자동차 디지털 키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이다.

이 과제들이 상용화할 경우, 2차

전지산업 및 머신비전을 이용한 유관 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류운반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캐슈어링, 렌터카 산업의 보안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까지 국비 1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마케팅,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한다.

●미래성장과041-635-2914

6차산업 인증경영체에 택배비 지원

도, 업체당 50만 원 2개월

충남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해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도내에는 총 185개의 경영체가 농림

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았다.

도는 시범적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체당 최대 5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경영체에서는 2개월간 택배비를 지출한 뒤 일정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택배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촌활력과041-635-253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90% 지원

도, 중소 배출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충남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규정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산업

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7억 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와 시군비 등 240억 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주요 배출 허용 기준이 평균 30% 강화되는 만큼 많은 사업장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안전관리과041-635-4444

도민안전보험 혜택 3000만 원까지

홍수 화재 태풍 등 보상

농기계 뺑소니 등 특성별 보장

충남도가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당초 1000만~2000만 원 보상에서 상향된 것.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을 당초 ‘1000만~

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도는 향후 보험 수혜를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4건의 보험이 접수돼 총 2억 5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미청구 건수(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가 상당부분 잔존함을 고려할 때 수혜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안전정책과041-635-5622

하노이, 뉴델리 진출 희망 기업 모집

20개사 대상...中대체 다변화

도 해외통상사무소 첫 사업

충남도는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지원’은 도에서 설립해 개소절차가 진행 중인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하노이,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베트남과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모집, 현지시장조사와 현지바이어를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사무소별 10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연간 수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으로,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지원 가능하다.

이종환 도 국제통상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중국 대체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와 베트남에 우리 도내 기업진출의 참여를 바란다”며 “도가 해외통상사무소가 개소하면서 추진하는 첫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제통상과 041-635-3360

폐비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폐 농약용기 1개당 50~100원

도는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잔재물 등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및 산발 유발 등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도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폐비닐 1만7413톤, 폐 농약용기 717만 개를 수거한 바 있다. 폐비닐 수거비는 1kg당 50~200원이다.

●환경안전관리과041-635-4452



코로나19 소비패턴 주목... '막힌 수출길' 연다

도, 코로나19 소비패턴 주목
인삼 홍삼 소비 확대 기회로
금융 및 판촉, 플랫폼 지원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막힌 농산물 수출 길을 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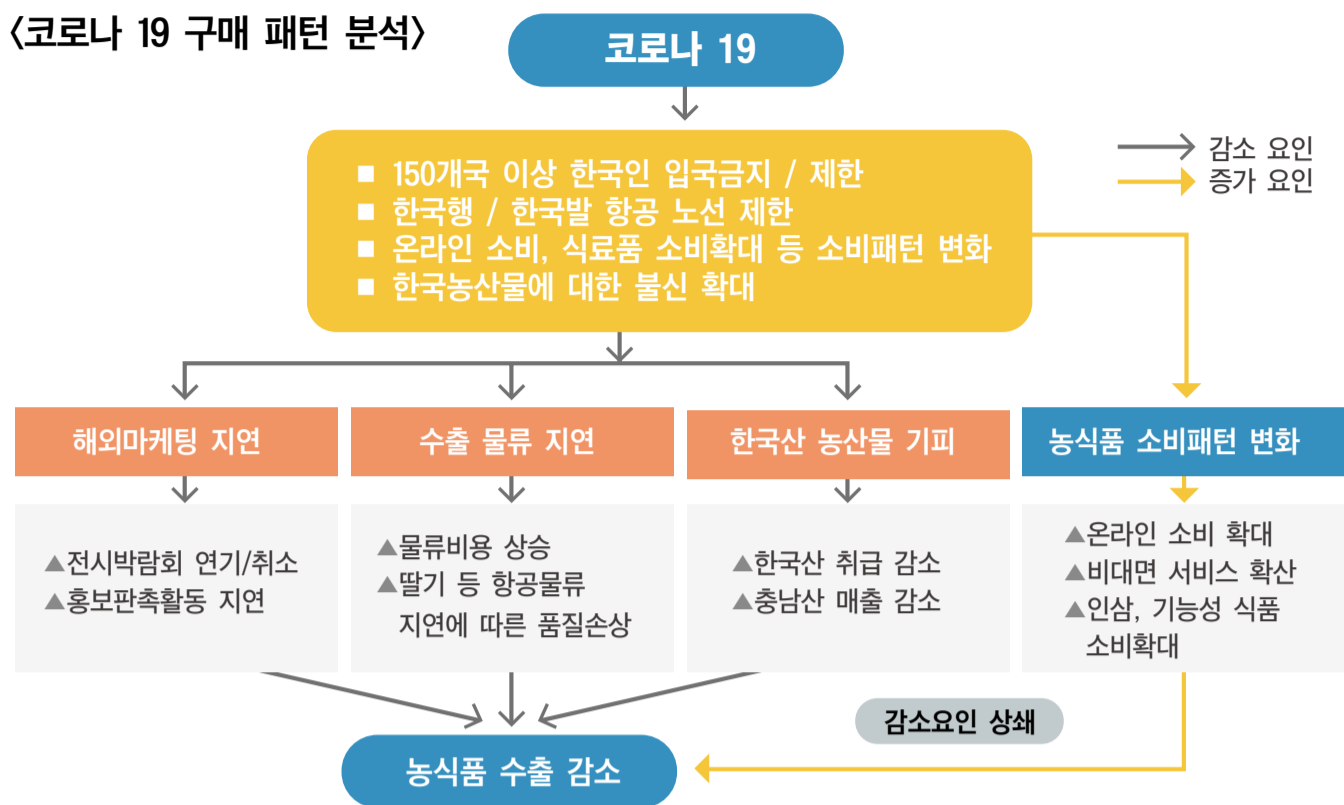
도에 따르면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 여객기 중단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 국내외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 강화에 도움 되는 인삼과 홍삼, 건강기능 식품 등의 소비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채소와 과일, 육류제품, 해산물 등 신선식품 구입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하고 있다.

(코로나 19 구매 패턴 분석)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이탈리아 화장품 등의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아 역시 온라인을 통해 일반약품 및 전해졌다.

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의

해외지사 인프라를 활용,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온라인매장에 입점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현지 바이어가 직접 하는 긴급 신선농산물 홍보관측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개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국내 농식품 수출능가 및 업체에 2억 원 한도 내 원료구매자금을 0.7% 저리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도 농림축산국장은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불안감에 따른 필수 식재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식품유통과041-635-4163

이순신 세계화...현충사 일대 관광콘텐츠 뜬다

문광부 관광사업 공모 아산 선정
200억 확보 이순신 콘텐츠 육성
왕실온천 명성 되찾기 사업 추진

아산시 온천동과 염치읍 일대가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의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아산시의 '충·효·애(忠·孝·愛),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주도의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 수요 맞춤형 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된다.

주요 내용은 ▲'이순신 세계로 가다'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 ▲사업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주민 공동체 성장 지원 ▲'임금님 온천을 처방하다' 왕실온천 명성 되찾기 사업 ▲관광환경 개선 등이다.

핵심 사업인 '이순신 세계로 가다'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점형 교육기관 및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 현충사를 중심으로 인접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 관계자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각종 축제·예술제 등과 연계해 지역 일대를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과041-635-3889



충무공 이순신 장군 고택

민주시민교육 이끌 전문가 14명 위촉

역사·문화·인권 관련 구성

충남도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열고, 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제정한 충청남도민주시민교육조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은 도와 도교육청,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수, 역사·문화·인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자 등이다.

이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 발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중요하다"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와 함께 도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법무담당관041-635-3227

충남배경 독립 영화에 최대 7000만원

충남영상위, 충남배경 30%이상
장편2편 단편6편 1억1800만원

충남의 공간과 지역정서를 담아낸 독립·예술영화에 최대 7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충남영상위원회는 영화제작자들의 안정적 제작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작비 지원 대상은 전체 상영분량 가운데 충남을 배경으로 30% 이상 촬영한 영화여야 한다. 장편은 순제작비

10억 미만에 상영시간 60분 이상이다. 단편은 제작비규모의 제한은 없으며 상영시간은 60분 미만이어야 한다.

장편영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2개 작품을 선발해 작품 당 최대 7000만원을, 단편은 충남도민 또는 지역대학 재·졸업생들이 제작한 6작품을 선발해 각각 300만 원씩을 일괄 지원한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09

충남도, 종교 활동 자제 호소

종교계에 코로나 긴급 서한

충남도는 16일 도내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긴급 서한문을 보내 지역 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집회 자제를 호소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 천안지역 기독교총연합회 간담회 등을 열어 종교계의 협조를 지속 요청하고, 협력 방안을 논

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집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종교단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강력 요청한 것.

서한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종교시설 사용과 종교 활동을 자제해 신도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화정책과041-635-3812

임산부 전용 구급차 등 23대 신규 보급

코로나19 음압구급차 긴급 도입
도민 맞춤형 구급 서비스 강화

도 소방본부는 오는 9월까지 음압구급차 및 임산부 전용 구급차 등 23대를 신규 보급한다.

보급되는 구급차는 음압구급차 2대, 임산부 전용 대형구급차 3대, 일반 구급차 18대로 총 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음압구급차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15인승 쉐라티 차량을 특장한다.

구체적으로 환자실을 밀폐형 구조로 제작하고, 음압시스템을 적용해

외부로 감염확산을 완벽히 차단하는 기능이 갖춰진다.

도 소방본부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충남 북부 중앙에 위치한 예산소방서와 충남 남부 중앙에 위치한 부여소방서에 음압구급차를 배치, 이르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음압구급차와 마찬가지로 대형 쉐라티 차량을 특장, 임산부 전용 들것과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대비한 신생아 체온유지 및 추락방지 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임산부 전용 대형구급차는 도내 거점 지역인 보령·아산·서산소방서에 8월 중 우선 배치된다.

●119광역기동단041-635-5734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건축심의위원 14명 모집

충남도가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위원회는 향후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용역 지침서와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설치, 공공건축물의 부실한 기획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적 가치 구현과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건축계획·설계·시공·구조·설비·조경 등 6개 분야이며, 총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응모자격은 건축사, 관련 분야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방법은 '충남도 누리집(www.chungnam.go.kr)→행정→도정공고→공고·공시'를 참고하면 된다.

●건축도시과041-635-4666



239억 투입 교통 환경 대대적 개선

도, 지난해 보다 155억 증액
어린이보호, 노인보호구역 등 개선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TF팀 구성

충남도는 올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239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자는 취지인데, 지난해 84억 원보다 무려 155억 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신호기, 차량저감 시설, 안전표지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9개소) 18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5개소) 1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

충남 교통안전환경 개선 계획

| | |
|------------------------|--------|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9개소) | 18억 원 |
| • 회전교차로 설치(5개소) | 14억 원 |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32개소) | 34억 원 |
|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228개소) | 129억 원 |
| • 노인보호구역 개선(39개소) | 23억 원 |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개소) | 21억 원 |

선(32개소) 34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228개소) 12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39개소) 23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개소) 21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규 반영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

에 교통신호기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교육청, 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교통연수원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교통정책과041-635-2843

서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대산읍 소나무 13그루 감염
도, 반경 2km 반출 금지

충남도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인근 산림 소나무 13그루에서 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하고 피해목 제거와 역학 조사에 나섰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4일 고사목에 대해 1차 감염 판정을 내렸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차 검정한 결과,

감염을 확정했다.

서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모니터링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확산방지를 위한 나



무조사 등 예방사업도 시기별로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자원과041-635-4512

밭농사 노동시간·품 줄인다

농기원, 밭농사 기계화 추진
밭작물 신기술 선도 육성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밭농사 기계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기준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인데 반해 밭농사 기계화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또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정식·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서류생력재배단지 육성 ▲밭작물 안정생산단지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 사업으

로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중·정식·수확 등 농작업에 기계화 기술을 접목해 노동시간과 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이흥복 식량작물팀장은 "현재 농촌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해 농작업의 기계화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밭농사 기계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개선해 작물별 기계화 기술 시범 사업을 확대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041-635-6163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세요

코로나19 소비 촉진 나서

충남도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소비촉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 급식에 공급되지 못한 친환경농산물 6톤

을 소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채소류와 과일류 등 총 38종이며 '채소 꾸러미' '채소·과일 꾸러미' '과일 꾸러미' 등 3종으로 나눠 판매된다.

'채소꾸러미'는 적상추와 근대, 시금치 아욱, 대파 등으로 구성됐고, 채소·과일꾸러미는 표고버섯, 딸기와 같은 채소와 과일로 구성됐다.



과일꾸러미는 대추방울토마토와 완속토마토, 딸기 배 등의 친환경 과일 약 4kg으로 구성됐다.

●식량원예과 041-635-4048

신품종 16종 공급 기반 마련

딸기·국화·프리지어 등

9개 육묘업체와 품종보호권 계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의 안정적인 우량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9개 육묘업체와 자체 개발한 신품종 16

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신품종의 판매 규모는 ▲딸기 2품종(킹스베리, 씨니베리) 136만 주 ▲국화 12품종(리블리송, 백야, 보라미, 불카레드, 시어화이트, 예스누리, 예스루비, 예스홀릭, 핑크루팡,

만추블, 초롱블, 한아름블) 283만 주 ▲프리지어 2품종(골드문, 레드센) 42만 구이다.

딸기 계약 업체는 씨니팜영농조합법인, 모두유통농업회사법인 등 2곳이며 국화는 맑은샘, 순, 베스트멤, 농업회사법인 에버팜, 월명팜영농조합법인, 하늘화훼종묘 등 6곳, 프리지어는 충남화훼종묘 1곳이다.

●농업기술원041-635-6043

현대 詩史의 드높은 봉우리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⑤흥성 한용운

예술혼으로 어두운 시대 밝혀

님의 침묵, 기룬 것은 다 님이다

홍주성 동상은 불멸의 시인 기억

흥성은 언제나 만해 한용운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이는 대의를 위해 목숨걸기를 기꺼워하던 절의정신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결단과 실천의 행동적 바탕 위에 꺼질 줄 모르는 예술혼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879년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나 26세 때 백담사에 들어가 불문에 입도했던 한용운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 '공약삼장'을 덧붙이는 등 민족자존을 지켰다. 1926년 88편의 시를 묶은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내는 등 저항문학에 앞장서고, 어려운 불교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고자 팔만대장경 핵심부분만 뽑아 「불교대전」을 간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4년, 광복을 1년 앞두고 64세로 심우장에서 입적,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생가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면 불과 몇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는 나지막한 마루, 그와 연결된 두 칸의 작은 방과 부엌이 보인다. 이것이 전부다. 참으로 소박하다.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초가 앞에서 그가 사랑해마지 않았던 '님'을 묵상해 본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



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중략)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 「님의 침묵」 서문 「군팔」 1926

한국 현대시사의 거봉으로 자리하는 민족시인 한용운. 한 일간지 설문조사에서 「님의 침묵」은 21세기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사적 의미가 큰 작품에 단연 첫 번째로 뽑혔다. '시문학 사상 가장 넓고 깊은 인간성을 표현한 절실한 시'라는 평가와 함께.

어릴 적 서당에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 그가 정서와 사상이 조화된 놀랍도록 아름다운 시를 썼다. 그러면서 실천력을 보임으로, 학벌이나 경력을 장식처럼 걸치고 입으로 민족애를 외치던 기존 문단에 경종을 울렸다. 해방 후, 님에 대한 그리움과 곧은 지조를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널리 회자되었다. 1992년 고향에 생가 터가 복원되고, 흥성 남산공원과 홍주성, 조양문 앞에 동상이 세워져 불멸의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충남신보, 세종시·농협·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신용보증업무 대행 서비스

협약은행서 보증 신청 가능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세종특별자치시·농협은행 충청영업본부·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과 '신용보증업무 대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세종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충남신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종시 내 농협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지역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 17개 지점에서 신용보증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95

중국인 유학생 제공 도시락 '적합'

도 보건환경연구원, 13건 검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 격리시설에 제공되는 도시락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천안시 등 도

내 7개 시·군이 의뢰한 즉석섭취 도시락 제품 13건에 대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5개 항목을 검사했다.

이번에 검사한 도시락은 2~3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격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2주간 제공하는 제품이다.

●보건환경연구원041-635-6831

행복걷기 "걷주" 참가자 모집

충남체육회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걷주' 앱을 활용해 도민들의 일상 속 걸음수를 모아 혜택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 참여 인원은 1만8000명이다.

자체개발한 '걷주' 앱에는 현재까지 40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다.

행복걷기 참여방법은 모바일 앱 "걷주"를 설치 후 충남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부터는 걸음수를 체크하고, 일정 걸음 수를 채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씨드포인트'도 제공된다. 충남도민 1일 1만보 챌린지와 65세이상 어르신 인센티브제 등 체육환경을 구축한다.

●충청남도체육회041-635-0124



‘만리포니아’ 서해의 서핑 천국 꿈꾼다

올 여름 만리포 국제 서핑 축제

충남도가 만리포 국제 서핑 페스티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올여름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태안군과 함께 ‘만리포 서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은 최근 서퍼들 사이에서 서핑의 메카인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의 이름을 딴 ‘만리포니아’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각광 받는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도와 태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서핑 방문객 등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만리포 해변을 서해안 서핑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제 서핑대회 ▲스케이트보드 대회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음악 축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도와 태안군은 지역협의체·서핑협회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페스티벌을 총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외 서퍼들에게 만리포 해변을 새

로운 서핑 포인트로 소개하고, 해수욕장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리포 해수욕장 서핑 방문객은 2017년 1만 2000명, 2018년 2만 300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해양정책과041-635-2763

농작물 저온피해 모니터링

고온에 마늘 10일 생육 빨라

품목별 꽃샘추위 대비해야

충남도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지난겨울 평균 기온은 2.2도로, 평년 영하 0.4도보다 약 1.8~2.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최고기온은 7.7도(평년편차 2.5도↑), 최저기온은 영하 2.5도(“ 2.8도↑)로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로 기록됐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과수의 경우

개화기가 일주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는 예상했다. 마늘과 양파는 10일, 인삼은 15일 정도 생육이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생육이 빨라질 경우 꽃샘추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는 노지 작물에서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5월까지 봄철 농작물 생육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품목별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식량원예과 041-635-4050

축산차량 ‘신형 GPS단말기’ 보급 추진

전염병 이동경로 파악 향상

3년 경과한 4300대 우선 교체

전원 꺼져도 데이터 유실안돼

충남도가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신형 GPS단말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서다.

이번 신형 GPS단말기는 구형단말기

에 비해 위성 수신율이 향상된 것이 특징으로 전원이 꺼졌어도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교체대상은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 사료운반, 컨설팅 차량 등 축산관련시설을 출입하는 19종의 축산차량이다.

도는 구형 GPS단말기가 장착된 축산차량 8000여 대 중 약정 기간이 3년 경과한 4300여 대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도는 신형 단말기가 모두 보급되면 재난형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확한 이동경로를 확보, 역학조사 및 전파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은 전파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축산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단말기 교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방역위생과041-635-2552

벼 보급종 신청 서두르세요

삼광 등 13개 품종 접수 중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안창근)에서는 정부 벼 보급종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인터넷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www.seednet.go.kr) 및 전화(041-541-6646)로 신청하면 된다.

공급 품종은 3월 13일 현재 삼광벼

98톤으로 공급가격은 20kg당 44,700원이다. 정부 보급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041-540-4110

알젓는 소리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36)

‘꼬꼬댁 꼬꼬, 꼬꼬댁 꼬꼬’

서울 닭의 ‘알젓는 소리’

충청도 암탉의 ‘알젓는 소리’

초가집 옆 달기장에 암탉 울음

출근길 위로 암탉소리 휘날린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알젓는 소리. 내 사무실 앞쪽에는 예산천이 흐른다. 개천을 덮어 만든 하상주차장, 차를 세우고 돌아서는 길옆으로 작은 집들이 늘어섰다. 주변에는 빌딩들이 즐비한데 역사의 발자취처럼 늙은 기와집과 함석집이 손을 맞잡고 있다. 차도와 인도에 이어진 장미울타리, 그 안쪽 철장 안에 닭 몇 마리 오종종 모여 산다.

1970년대, 어린 날의 초가집 옆엔 달기장이 있었다. 붉은 갈기를 세운 수탉은 겨우내 서녘의 암탉을 거느렸다. 암탉들은 아침마다 알을 낳았다. 해가 솟아오르면 모시를 흠뻑 먹은 암탉들은 짚동지에 몸을 사렸다.

즈음엔 파근한 동그라미를 낳았다. 그러곤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알렸다. 갓 낳은 알을 품으며 한참을 꺾꺾거리다간 꼬꼬댁 꼬꼬 일어섰다. 그러면 나는 달기장을 향했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달기장은 양계장이 되었다. 날갯죽지로 개나리를 품던 자리에 부화장이 생겼다. 그러는 동안 나는 암탉이 ‘알을 젓는다’는 충청말을 잊었다. 충청도 사람들은 표준어 ‘기’를 흔히 ‘자’로 쓴다. 김치를 집치라 하고 김밥을 집밥이라 한다. 서울 사람들이 몸을 기울일 때 충청도 사람들은 몸은 찌울이고, 서울 사람들이 고개를 가웃거릴 때 충청도 사람들은 고개를 짜웃거린다.

오늘 출근길, 나는 오랜만에 충청도 암탉의 외침에 몸을 적셨다. 서울 닭의 ‘알젓는 소리’ 위로 쏟아지는 충청도 암탉의 그리운 소리.

※알젓는 소리의 젓의 자받침은 ㄷ으로 표기가 맞음.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환경 배출사업장 기술지도

소규모 기업 600개소 대상

충남도는 도내 영세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술지도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운영 능력 향상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영세 중소기업 600개소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지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기술·행정 실무 교육 및 우수기술 사례 전파 ▲국제 환경 기술 전시회 참관 ▲우수업체 견학 등이다.

도는 연말까지 도비 4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안전관리과041-635-4447

농업안전문화 확산 사고 줄인다

농기원, 농업안전 시범사업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개 시·군 32개소에 13억 원을 투입해 농작업 안전지원에 나선다.

농기원은 고령 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보호구 및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농기계·의료분야 전문가와 함께 농작업 환경, 농업인 건강상태 확인

등도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안전 분야 사업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작업 안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 재해가 일반 산업의 2배(0.9%)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기술원041-635-6182

구기자 가지 꼭 정리해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구기자 생육기를 맞아 비배 관리 및 병해충 사전 방제를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구기자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특성상 전년도 가지는 모두 제거하고 새 가지를 받아야 한다.

봄철 밀거름과 퇴비는 구기자 뿌리 주변 10cm 바깥의 골 사이에 뿌리고,

주변 흙을 이용해 묻어줘야 효과가 좋다.

또 화수·청강·청수 등 신품종은 흑응애에 강해 발생이 적으나 재래종과 같이 흑응애에 약한 품종은 적용 약제를 새순이 피기 전·후 1~2회 줄기와 포장 주변에 살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업기술원041-635-6384

충남 콘텐츠 입주기업 모집

8개사 선발해 최대 1억 지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콘텐츠기업 최대 8개사를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1400만 원의 사업 고도화자금이 지원되고 별도로 벤처 캐피탈(VC) 연계를 통해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과 지역대학 기술연계 및 인력매칭 프

로그램도 지원된다.

입주대상은 액셀러레이팅 업체와 콘텐츠 관련기업과 단체로, 입주 적합성과 경쟁력, 사업계획, 성장잠재력을 서류심사와 발표평가(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선발한다.

입주면적은 업체당 61~120㎡(공동시설 포함)로 월 임대료는 ㎡당 1900원이다.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041-620-6455

“내 나이가 어때서~”...80대 할머니들의 유쾌한 도전

문화사 - 당진 '회춘유랑단'

문영미 단장 중심 2018년 창단
평균 80대 산성리 할머니들 참여
어린이들에 설화 인형극 선보여



회춘유랑단 단원들이 마을 논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회춘유랑단 제공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의 한 노인회관. 봄을 시샘하듯 강풍이 몰아치던 3월 중순의 어느 날, 10여명의 마을 할머니들이 온돌방에 웃음꽃이 한 가득이다. 웃놀이와 같은 놀이로 농한기를 보내는 여느 마을과는 달리 이곳에는 특별함이 있다. 할머니들은 당진시에서 기획하는 충남도민체전 CF 촬영 준비로 연기연습에 한창이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들 같다고? 신인극단으로 지난해 충남연극계를 깜짝 놀라킨 '회춘유랑단'의 주인공들이다.

회춘유랑단은 할머니 배우들만으로 구성된 마을 연극단이다. 산성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균 80대 할머니 12명이 단원으로 소속돼 있다. 2018년 창단한 회춘유랑단의 구심점은 20대 중반부터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귀촌한 문영미(47) 씨다. 당진 산성리가 고향인 2009년에 고향으로 귀촌, 아들과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예술교육 강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연극 저변화에 앞장서 왔다.

할머니 극단인 회춘유랑단은 문 씨에게도 일생일대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계기는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할머니들에게 연극은 생각보다 어려운 도전이었다. 긴 대본을 외워야 했지만 한글을 모르

는 이가 태반이었다. 문 씨는 할머니들을 위해 대본을 녹음해 수차례 들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연극놀이 교육 경험을 살려 놀이의 성격으로 연습을 진행하자 낯설어하던 마을 할머니들도 점차 연극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농번기에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점심, 저녁으로 마을회관에 모여 연습을 이어갔다. 이렇게 할머니들은 어렵사리 연극 하나를 완성했다.

할머니들의 첫 작품은 '안국사 배바

위'였다.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에 있는 안국사지 배바위에 얽힌 설화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회춘유랑단의 첫 공연은 초등학교들과 함께하는 세 시간짜리 연극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임 준비에만 두 달이 걸렸다. '안국사 배바위'를 마침내 무대 위에 올렸을 때 아이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첫 공연의 성공은 할머니들은 물론 마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은 '늦은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요했던 마을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은 해 회춘유랑단은 제1회 충청남도 아마추어 연극제 초청공연의 기회를 얻으며 정식으로 데뷔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회춘유랑단은 연극단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춘유랑단은 지난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년차 사업으로 '노년, 예술을 꿈꾸다'라는 주제의 노인인식개선 교육극을 총 7차례 무대에 올렸다. 평균나이 80세, 시골 할머니들의 연극무대가 입소문을 연 자자체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당진시가 주최한 주민자치정책박람회에서 회춘유

랑단은 초청공연으로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주제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당진시는 지난해 회춘유랑단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체전 홍보영상 주인공으로 회춘유랑단을 선택했다. '쓰레기',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없는 체전을 만들자는 내용의 5분짜리 콩트에서 할머니들은 구수하고 재치 있는 연기로 숨겨진 재능을 뽐냈다.

회춘유랑단은 올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작품인 '봉화산 봉수대' 등으로 올해 당진에서만 총 17차례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기간에 정식 극단으로 등록하고 할머니 극단이라는 특색으로 매스컴의 관심을 받고 있는 회춘유랑단에게도 고민은 있다. 고령인 할머니 단원들의 건강과 극단의 지속여부가 그것이다. 문 씨는 "앞으로는 마을 부녀회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돌려헤나갈 예정"이라며 "할머니들은 재능기부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지만 소정의 공연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회춘유랑단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탄소포인트 받아보세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현재 사용량 < 비교 > 과거 2년 간의 평균 사용량

탄소포인트 부여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연 2회 부여

|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 5% 이상~10% 미만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 10% 이상~15% 미만 | 10,000 포인트 | 1,5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 15% 이상 | 15,000 포인트 | 2,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4회 이상 연속 감축자 다음 반기부터 0%초과~5%미만 감축 시 포인트 부여

|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 0% 초과~5% 미만 | 1,000 포인트 | 150 포인트 | 600 포인트 |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 1포인트 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지급주기 : 연 2회(6월, 12월)
- 지급종류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종량제봉투 등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종류 중 1가지 선택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센터가 필요해요.

| 구분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센터 10자리 확인·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기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수용기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 |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충청남도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서산 유기방 가옥

봄은 '노랑' 이로서이다

그림으로 떠나는 고택스케치

따뜻한 봄날 이었다. 코로나 19로 모두들 어려운 이때에 날씨는 어찌나 좋은지... 매화, 산수유에 수선화까지 온갖 꽃들이 만개한 어느 봄날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위치한 유기방 가옥을 찾았다. 입구부터 온통 노란 수선화가 가득하다.

집 입구에는 봄기운을 받아 예쁜 색을 발하고 있는 탕자나무를 앞에 두고 우물과 빨래터가 있다. 옛 가요가 생각나 흥얼거리며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섰다.

사랑채를 지나 안채로 가니 봄볕에 어찌나 대청마루가 따뜻한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득한 야산을 뒤로하고 U자형의 토담을 두른 후 동쪽에

사랑채 공간과 서측에 안채를 토담으로 구분하였다.

사랑채는 I자형으로 들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사랑방에서 마루까지 한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랑채 앞에는 7자형 사랑채 대문이 자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안채는 一자형으로 부엌, 방, 대청마루, 건너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뒷마당에는 석축 위에 장독대를 설치하여 장독마다 박석을 깔아 놓은 것이 이채롭다. 행랑채는 안채 좌측에 있고 중앙간에 협문을 달아 외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굴뚝이 뒤로 흐르는 배수로위를 지나도록 설치하였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욱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걸엔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충남정신건강상담 1577-0199

나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염병 재난과 언론의 역할

내포칼럼



백진숙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코로나19로 언론뉴스 수요 증가
확인 안된 유언비어 대량 유통
정치 프레임화·정쟁 소재 삼기도

방역체계 감시·빈틈 지적 책무
무조건적 비판·과대해석 지양해야
'정확한 정보전달자' 역할 필요

며칠 전, 안전하다 믿었던 필자가 사는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가 경고하듯 날아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적 사안이지만 막상 내게 닥친 일이 되니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또 감염병과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세삼 정부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와 함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언론뉴스였다. 뉴스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지난 메르스 초기,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자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에 휩싸였고, 일부 언론은 안이한 태도로 방관했다.

국내 우수 언론사는 “전세계 3차 감염 통한 대규모 발병 사례는 없어”, “2차 감염 지나면 바이러스 독성 낮아져”,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메르스 전염력은 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2주 뒤 4차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등장했고, 그 후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익히 다 아는 사실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철저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만큼 국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주의로 인한 전염이나, 무지로 인한 사회적 과민반응을 차단할 수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문자, 카톡이나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국가도, 행복한 나라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대량 유통됐다.

언론은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유언비어 확산을 막아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한 폐렴 실제 감염자 9만명”, “중 사망자 56명...

‘에이즈 치료제’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차 변이까지 일어났다. 폭발적인 전염이 예상된다.”, “감염자 기침 한번으로 주변 14명이 동시에 감염된다.

폐렴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었다” 등의 미확인 정보와 “우한에서는 500만 명이 탈출했고 6000명이 넘게 우리나라에 왔다.”, “상당히 많은 수의 우한 시민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 등.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뉴스가 가감없이 전달됐다.

또, 이런 시국에도 반복적으로 정부와 일선 지휘자들을 상대로 직접 정치 프레임화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특정 집단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감염병이 생겼을 때,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빈틈을 지적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역체계가 합리적임에도 현상을 비틀거나 과대 해석하는 일은 사회에 불안과 혐오를 일으킬 뿐이다.

단순히 영상을 올린 유튜브나, 가짜 뉴스 생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전달자’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때문이다.

감염병의 불안감은 과연 감염병에서만 오는가?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은 무엇보다 정부가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및 확진자의 동선 분석과 대처 등으로 확산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언론은 정부의 대응에 빈틈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감시하며,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우되 불안감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시선은 철저히 국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꽃들에게 배운다

나태주의 풀꽃편지



시인·풀꽃문학관장

공주시청의 도움으로 풀꽃문학관을 연 것은 2014년의 일이고 정원에 꽃을 심은 것은 2015년의 봄이다. 앞 정원에 할미꽃을 심고 뒤 트랙 돌담 위에 구절초도 심었다.

그런데 해를 지내면서 꽃들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꽃들이 심은 자리에서 옮겨 다니며 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뒤 트랙 돌담 위의 구절초들이 아래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다. 꽃씨로 벼랑을 뛰어내린 결과다.

그리고 앞 정원의 할미꽃은 죽어버리고 그 대신 문학관 주변의 빈터 곳곳에 어린 할미꽃들이 솟아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꽃들도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땅을 찾아다녔다는 결과다.

더러는 심지도 않은 꽃들이 와서 살 때가 있다. 꽃양귀비나 장구채꽃이 그렇다. 일테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다. 이런 친구들이 찾아오면 쫓아내지만 않으면 된다.

저들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 그대로 살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일종의 공생이다.

지금껏 살면서 마음 안에 두고 사는 여러 가지 문장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한 자로 쓰면 ‘거자막추(去者莫追)요 내자막거(來者莫拒)’라. 이보다 좋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 물처럼 순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살라는 충고다.

이 말을 꽃들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된다. ‘가는 꽃 잡지 말고 오는 꽃 막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실상 꽃을 기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다. 귀한 꽃, 예쁜 꽃이라고 아끼는 꽃일수록 잘 자라지 않고 가다가는 죽어버리기도 한다.

이럴 때는 마음이 많이 안 좋다. 며칠을 두고 그 일이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 어른거린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위와 같은 문장은 셀프힐링이고 자정하는 위로다. 그렇다. 사람들도 내가 싫으면 떠나는데 꽃들이라고 안 그렇까.

그 대신 내가 좋아서 찾아오는 꽃들을 반겨 잘 기르고 사랑해주면 되지. 오늘도 나는 정원의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느낀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이런 기쁨과 보람이 나에게 머물기를 소망해 본다.

2020년은 어게인 필승 코리아!

생생현장리포트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



눈을 뜨자마자 TV뉴스 채널에 리모콘을 맞추면서 불안한 하루가 시작된다. 새들의 재갈거림과 싱그런 봄바람을 가득히 맞이하던 봄날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세계지도를 빨갱게 물들인 TV화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쭈뼛 솟고 온 몸에 공포의 전율이 흐른다. 멈출줄 모르는 이 대재앙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생김새 때문에 ‘코로나(corona 왕관)’란 고귀한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란 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예전엔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질병(역병)으로 나라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할 정도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160회가 되는데 많이 발생한 시기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부터 1791년까지 91회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흥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염병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스페인독감(1918), 홍콩독감(1951) 그리고 사스(2002), 조류독감(2003), 메르스(2015)등 각종 질병이 계속 발생했다. 인간은 질병과 끝없이 싸우며 생존해왔다. 현재

도 미래에도 질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금융조치로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시민들은 임대료 인하, 자원봉사자의 희생, 물품과 재정지원금 답지 등 官과 民 모두 이 초유의 재앙과 사투 중이다.

이 와중에 마스크 사재기로 이익 보려는 자, 가짜뉴스 올리는 자, 더 황당한 것은 소금물 제공(?)하는 목회자 사모님 뉴스는 웃을 수도 없거니와,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SNS에 자랑삼아 올렸다가 해고당한 무용수의 개념없는 뇌세포는 궁금할 정도다. 또 세계가 하나의 공동운명체인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예정된 7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차 안에서 진단받는 것)선별진료소’ 방법을 미국과 독일이 도입하고 있고 외신의 “한국 만큼 코로나19를 잘 대응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보도가 국민들에게 잠시 위안을 주고 있다. 그래!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긴다.

2002년이 ‘오 필승 코리아!’였다면, 2020년은 ‘어게인 필승 코리아!’이다.

산을 노닐었던 조선의 선비들

충청의 산수 - 유교의 산수관

② 유산(遊山)과 등산(登山)

한국 사람은 유달리 산을 좋아한다. 등산은 한국인의 국민 취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등산복을 입은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등산복과 등산장비가 대량으로 생산(#12539; 소비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여기에는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그 이유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도 산을 좋아했다. 산은 한국인의 일상과 함께 했다. 산을 넘지 않고서는 지역간의 이동이 불가능했고, 산속에서 많은 일용의 물품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선인들에게 산은 정신적 토양까지도 제공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각기 자신이 정착하던 지방의 산을 수시로 유람했고, 때로는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다.

선비들은 산을 찾은 동기와 여정, 그리고 거기서 느낀 감흥을 꼭 붓으로 남겼다. 방식은 다르지만 현대인들이 좋은 경치를 만나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이렇게 남겨진 조선시대의 유산기는 5백60여 편에 달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산을 좋아하는 문화유전자가 심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산을 찾는 여정을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선비들의 유산과 오늘날의 등산도 방식의 차이가 있다. 먼저 이름부터 다르다. 등산이라는 말은 ‘산을 오른다’는 말이고 유산은 ‘산에서 노닌다’는 말이다. 현대인들도 물론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지만, 등산은 정상을 향하여 산을 오르는 행위에 방점이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좋아하는 운동에 전국민의 8%가 ‘등산’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처럼 등산은 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선비들의 유산도 심신을 수련한다는 목적이 있다. 산은 생명의 보고(寶庫)이니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비들은 신체의 건강보다 마음과 정신의 수양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맑은 새벽 말을 타고 청심대에 도착하니 / 대(臺) 아래 긴 강은 깊이가 백척이구나 / 올라가 휘파람 한 가닥에 계곡 바람 맞이하니 / 내 마음 맑아져서 이미 옛 것이 아니로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천상이 금강산 유람기로 쓴 관동록에 나오는 시이다. 산 정상을 목표로 힘차게 산길을 오르는 ‘등산’이 아닌, 산과 하나 되어 자연을 즐기는 ‘유산’의 한 면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등산’과 ‘유산’의 경계가 칼로 무 자르듯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 한국인이 좋아하는 ‘등산’에는 분명 ‘유산’의 흔적은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산과 자연을 사랑하기에 산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좋아서 찾는 산이라면, 산을 더 즐길 수 있는 선인들의 방식인 ‘유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 싶다.

/이치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코로나19

충청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도민 생계는 위협받는 상황!

소상공인 매출 추이 자료 :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2020.2.충남연구원)

100만 원

1가구(업체)당 / 운수업체는 해당업체별로 손실액 별도 산정 지원

시군에 따라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로 4월 중 지원

제도권에 있으나,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단위로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매출액
89.1% 감소

이용객
87.9% 감소

소상공인·운수업체 종사자·저소득층 등 충청남도내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시내외 버스
경영손실자금지원
택시운수 종사자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19업체), 시외버스(5업체)/ 법인·개인 택시(7,000명)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실직·일용직·비정규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포함

3.19 예산안 편성 및 확정 충청남도청 3.20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충청남도청

3.25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 충청남도청

3.26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상임위

3.27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예결위 및 본회의
관련 조례 제·개정, 추경안 편성 15개 시군

4월 중 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이 다음달 긴급 지원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입니다. 또 운수업체 및 종사자, 저소득층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인 학습교사와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코스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들도 포함됐습니다. 1가구 당 100만 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충청남도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Q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문의처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http://www.ei.go.kr>)

| 청(지청) | 관할지역 | 연락처 |
|------------------|-------------------------|--------------------------|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 금산군 | 042)480-6212~13, 6015~21 |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 공주시 | 041)851-8507 |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 논산시,계룡시 | 041)731-8601 |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 041)620-7441-6 |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 041)930-6259, 6243 |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 서산시, 태안군 | 041)661-5614 |

Q 고용촉진장려금

| 세부사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월 40~8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지원 | 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 국내복귀 기업 지원 |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참고1) 월 60만원 - 중견기업 월 30만원 |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중견기업 월 40만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노동시장에서 취업취약계층(중증장애인 심저자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 |

Q 고용안정장려금

| 세부사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
| 정규직전환 지원 | -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불안정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
| 위라벨일자리장려금 (구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 단속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대규모기업(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코로나19관련사책 |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주당 최대 10만원(연간 최대 520만원) |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사업주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 1인당 10~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및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Q 고용유지지원금

| 세부사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
| 고용유지지원금 * '코로나19' 관련 사책 | - 휴업 - 사업주가 근로자 지급 휴업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3) -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 지급 휴직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3)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코로나19' 관련 사책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 - 2/3 - 2/3)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등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근로자 평균임금 50%(1월 6.6만원)범위 내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심사위원회 결정 -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 -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

Q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 세부사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
| 청년내일 채용공제 | - 2년형 - 청년 2년간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적립하여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 청년 3년간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 적립하여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15~34세)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코로나19' 관련 사책 |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50만원 혜택)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70만원 혜택)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3년간 지원)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근로자 수의 20%까지 30만원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 |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 | - 청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를 장년이후주원일자리에서 고용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 |

Q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세부사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45~12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현원별기준으로 월 200만원 ~ 520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 설치 소요비용의 60~90% 범위 내에서 한도액 3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 교재구비는 5천원까지 무상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 - 용자조건: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용자금 1억원당 1명의 (중)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대출금리: 연 1%)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려는 사업주 |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억원 지원(이중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투자비(설비투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등) | 교대제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확대기업 |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상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시스템 구축비(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려는 사업주 |

‘꿀벌 닮은 분업’... “목표는 양봉 대표마을”

더 행복한 마을

-청양군 운곡면 사자산마을
천혜자원 활용한 체험마을 운영
꿀 생산~관광까지, 양봉 공동체
전통계승 ‘마을생일잔치’로 화합
비비랜드로 청양 랜드마크 목표



사자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전통인 산신제와 노신제를 계승해 매년 10월 3일 마을 주민생일잔치를 함께 연다. 사진은 마을 주민 생일잔치에 앞서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꿀벌은 분업사회를 이룬다. 여왕벌은 알을 낳고, 수벌은 여왕벌과 함께 오로지 번식기능만 수행한다. 일벌은 먹이를 찾고, 벌방을 짓고 방어하는 임무를 맡는다. 청양군에는 마치 이 꿀벌처럼 철저한 분업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양봉 6차 산업 중심지를 꿈꾸는 마을이 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청양 운곡면 신대2리 사자산마을이다.

공주 신평면 유구읍 등과 맞닿아 있는 사자산마을은 양쪽으로 솟은 칠갑산과 사자산의 품에 안긴 채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았다.

봄, 여름으로 산나물채취, 반딧불 관찰, 가재·다슬기 잡기, 가을엔 꿀 견과만들기, 밤 쪼기, 겨울에는 빙어 낚시, 썰매타기 등 방문객들을 대

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마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화합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4회에 걸쳐 마을 전체 주민이 참석, 마을입구의 저수지와 갈대숲, 도로변 정비 활동도 펼친다.

사자산 마을은 천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양봉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가고 있다.

사자산마을은 2010년대 초반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건립,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마을의 외관을 새롭게 단장

한 뒤 외부에 문을 열고 체험마을을 운영했다. 운영 초기 적자난에 시달리면서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주민 몇 명이 모여 직접 감자, 고구마 등을 팔며 적자를 메웠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후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재구성, 2018년부터 10여개 농가가 함께 양봉을 시작했다. 양봉 교육을 받으러 다니며, 양봉과 마을 조경 모두에 필요한 밀원수를 직접 식재했다. 마을과 법인이 힘을 합쳐 농가당 10개씩 벌통을 분배하고 각 농가 벌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 양봉 공동체가 꿀을 생산에 법인에



사자산마을은 앞으로 벌꿀 체험·가공센터 ‘비비랜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넘기면 법인은 온라인 쇼핑몰 등 판로를 개척해 수익을 올렸다. 한 공동체이면서도 농가와 법인의 역할을 나눠 분업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남훈 사자산 체험마을 대표는 마을공동체 운영의 필수조건으로 분업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려고 하면 공동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도나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대부분의 농가들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분업체계가 뒷받침돼야 주민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마

을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을의 평안과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던 산신제와 노신제를 계승, 매년 음력 10월 3일에 ‘마을 주민 생일잔치’를 함께 연다. 이날 주민 모두와 출향인들이 모여 함께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푸짐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끈끈한 정을 쌓는다.

사자산마을은 앞으로 양봉 6차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봉 규모를 벌통 300개에서 1000개까지 늘리고 벌꿀 체험·가공센터인 ‘비비(Bee-bee)랜드’와 ‘꿀카페’ 조성이라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입구에 위치한 신대저수지 주변에 밀원수 겸 조경수를 심어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휴식공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계획의 중심에는 여전히 공동체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양봉 공동체마을만 생각 중”이라며 “작은 마을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청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서천쭈꾸미 드시고 코로나19 극복하세요

동백꽃 필 무렵엔 역시 ‘쭈꾸미’
침체로 힘든 어민엔 효자
코로나로 ‘손질 쭈꾸미’ 택배 늘어

[서천]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을 ‘서천쭈꾸미’가 기운을 북돋고 있다. 서천산 쭈꾸미는 알이 꽉 차고 맛이 좋아 봄철 별미 중 최고로 손꼽히며,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아 피로감이 몰려오는 봄철에 먹기 좋은 음식이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3월에 개최됐던 ‘동백꽃·쭈꾸미 축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개최되지는 못했지만 경

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서천군 수협은 경우 올해 어획량(3월 16일 기준)이 2만7511kg으로 지난해 2만4304kg보다 늘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인구가 크게 줄면서 쭈꾸미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어가에서는 자구책으로 쭈꾸미의 내장과 먹통을 제거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손질 쭈꾸미’를 택배로 판매해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쭈꾸미는 맛도 일품이지만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아 기력이 없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이맘때 먹기 좋은



음식이다. 쭈꾸미의 풍부한 오메가3지방산·EPA와 DHA는 혈류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장환/서천신문사 news1128@hanmail.net

충남문화재 1호였던 보물 ‘오누이탑’

새로 배우는 충남학

계룡산 정상부근 칠층, 오층석탑
고려 중기 백제 양식으로 건립
백제의 옛 땅 문화 특징이 반영

지난 가을 계룡산을 올랐다. 갑사에서 동학사로 넘어가는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정상 가까이에서 청량사지 칠층석탑과 오층석탑이 있다. 산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고자 널찍한 공터의 돌 위에 앉아 탑을 바라본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두 탑을 검색하다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냈다.

원래 청량사지 쌍탑이라 불렀던 두 탑은 1971년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처럼 한때 충청남도 문화재 1호였던 것이다. 지금은 청량사지 칠층석탑과 오층석탑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있고, 각각 보물 제1285호와 보물 제1284호로 승격되었다. 그래도 이 탑들이 과거 충남의 유형문화재 1호였다는 사실이 내겐 무척 흥미로웠다.

두 탑은 ‘오누이탑’이라고도 불린다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 때문이다. 옛날 이곳에서 수도하던 한 스님이 목구멍에 가시가 걸려 괴로워하는 호랑이를 도와주자 호랑이는 보답으로 한 여인을 데려다놓고 가버렸다. 스님은 그녀를 치료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그녀는 밤에 잡혀온 자신이 죽지 않고 암자에 머물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스님과 그의 인연은 부처님이 만들어준 인연인 것 같아



청량사지 칠층석탑



청량사지 오층석탑

암자에서 스님과 함께 불도를 닦겠다고 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오누이의 연을 맺고 일생을 더불어 이 암자에서 수행하였다. 뒷날 사람들은 이 오누이의 인연을 기려 탑을 세우고, 탑의 이름을 남매탑 또는 오누이탑이라 불렀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이 탑이 원래 각각 칠층과 구층으로 세워졌으며 고려 중기에 백제 양식으로 건립되었다고 적혀 있다. 백제가 멸망한지 수백년이 지난 뒤인데 백제 양식을 따라 탑을 쌓은 것은 백제의 옛 땅이었던 이곳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부장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3년 이상 친정 못간 이주여성
모국방문 항공료 등 지원

[홍성]홍성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08년 5가구의 ‘친정 나들이’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까지 83가구 284명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방문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1월 이전에 결

혼해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3년 이상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가정으로, 읍·면 주민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5가정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부 및 자녀의 왕복 항공료를 포함해 1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문화가족들은 자유로운 일정에 따라 고국을 방문하게 된다. /홍성군 제공

천안시청사 대형 실내정원 조성

10억 들여 800㎡ 벽면 설치

[천안]천안시가 시청사 내부에 대형 실내정원(조감도)을 조성한다. 시는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청사 내 1층 로비와 도출센터(비

즈), 민원실 내 벽면녹화, 기동녹화 등 약 800㎡ 면적에 대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벽면에는 빔조명 프로젝터를 설치해 다양한 테마의 조명, 이미지, 그림 등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동과 천장부에는 거대한 생명 나무를 테마로 한 뻗어나가는 나무 이미지가 연출된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첫 IC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천안사랑카드’ 4월 500억 규모
코로나19 극복위해 앞당겨
신용카드처럼 사용 편리해

[천안]천안시가 모바일 앱 기반의 IC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4월 7일 500억 규모로 발행한다. 당초 천안사랑카드의 발행 시기는 4월말이었으나,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초로 앞당겨 추진된다. 천안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안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발행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앱 기반의 IC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해 편의성을 높이면서 편리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는 천안시 소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이나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주유소, 전통시장 등 대부분 점포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과는 구분된다. 출시기념으로 출시일부부터 한 달간 1

인 월50만원, 연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때마다 1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전통시장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돼 60%(전통시장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고 천안사랑카드 앱이나 판매대행점 30개소(NH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에서 신청하고 충전하면 된다. /도정신문팀

예당호 대형스크린 음악분수

길이96m 고사높이110m 달해
한국 최고기록 도전 새 명소 기대
예당호 권역에 638억 투입
생태관광과 휴양시설 등 확충

[예산]예산군이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예당호 권역에 638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 한해 예산군 관광산업은 출렁다리 개통으로 관광특수를 누리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봤다. 출렁다리 개통 281일 만인 지난 1월 11일 300만 명이 방문했고 이로 인해 지역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의 상권이 활기를 찾게 되면서 농·특산물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출렁다리 효과로 인해 군 전체 관광객은 2018년 244만명에서 2019년 559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군은 예당호의 미래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

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예당호 음악분수대는 55억원을 투입해 길이 96m, 폭16m, 고사높이 110m의 부력식 음악분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간조명과 워터스크린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부력식 음악분수로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1주년인 4월 6일 한국 최고 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음악분수대가 준공되면 예당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62억원을 투입해 올 6월 착공을 목표로 팜센터, 숙박시설, 치유농장, 전망대 등이 들어서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흥면 동서리 일원에 조성되는 예당호 옛고을마당 조성 사업은 옛고을마당과 휴게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6억원이 투입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정신문팀

추사고택 현판 새로 달았다

사진 등 통해 복원 설치
무형문화재 박학규 선생 제작
진품은 추사고택에 보관

[예산]예산군은 추사고택의 역사적 고증을 통한 현판 정비로 문화재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 현판은 농상실(農祥室), 일금육경(一琴六經), 우학산인서실(友鶴山人書室), 추사영실(秋史影室) 등

4점이며, 모두 복제품.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50호 각자장 해초 박학규 선생이 제작해 추사고택의 사랑채와 영당에 걸렸다. 정비된 현판은 과거 화순옹주 흥문 내의 사랑채 사진을 통해 복원한 뒤 설치한 것으로, 실제 진품으로 존재하는 농상실(農祥室)과 추사영실(秋史影室)의 현판은 예산군 추사고택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번 추사고택 현판 정비는 추사 김



새로 교체된 추사영실 현판
정희 선생의 작품이 실제 고택과 어우러지는 경관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산군 제공

태안의 봄, 가의도에 피었네

[태안]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근흥면 가의도 인근에 활짝 핀 봄의 전령 노루귀와 복수초를 공개했다. 앞의 모양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하여 지어진 노루귀의 꽃말은 ‘인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봄은 찾아왔지만 봄 같지 않은 이 시기에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피어나고 있는 노루귀와 복수초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산자고, 보춘화, 현호색, 머위 등 다양한 꽃들이 봄기운이 퍼트리고 있다. 이민령/주간태안신문 leeiss@hanmail.net



부여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 박차

송국리 유적 범위 구조 밝힐 것
청동기시대 대표 선사 유적 정비

[부여]부여군이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1975년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4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된 부여송국리유적은 100여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석관묘, 옹관묘 등과 함께 요령식 비파형동검, 마제석검, 토기, 탄화미 등이 출토된 한반도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선사 취락유적이다. 그간 부여군은 송국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세

계유산 등재와 국내 최대 선사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송국리유적 정비와 복원에 힘써왔다. 금번 송국리유적 발굴조사는 지난해 시행한 2차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와 수혈유구 34기를 비롯해 고려~조선시대 토광묘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로, 이번 조사를 통해 송국리유적의 범위와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 제공

서산 천수만에 흑두루미 장관

개체수 전세계 25% 수준
3월 하순까지 머무를 듯

[서산]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4800개체 이상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3월로 접어들면서 천수만에 도래한 흑두루미의 수가 점차 증가해 최대 4800개체의 흑두루미가 확인됐다. 이는 전 세계 흑두루미 수(약 1만 9000개체 정도)의 25% 수준으로, 그동안 천수만에서 확인된 흑두루미 개체수의 최대 개체수라고 밝혔다.

천수만 지역을 방문하는 흑두루미는 꾸준히 머무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흑두루미는 서산시 고북면 사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A지구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청양에 젊은이들 거점 공간 생겼다

청춘거리 건물 매입해 리모델링
공연장, 청년창업 공간 갖춰

[청양]청양군이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0년 청년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층 전용 활력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사업에 앞서 지난해 12월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인 청춘거리내 구)구강비디오 2층 건물을 매입했다. 사업비는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과

구조개선에 사용되며, 내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설개방이 이뤄진다. 해당 건물은 1층 휴게실 기능을 갖춘 청년쉼터, 소규모 공연장, 청년창업 공간이 갖춰지고, 2층은 업무처리와 모임이 가능한 사무실과 회의실이 계획돼 있다. 청년활력공간 인근에 청춘하우스, 문화시설인 봄봄음악방, 공연시설을 갖춘 면공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관용/청양신문사 lee@cynews



조선 중종 삼월리 회화나무 공원화 추진

당진 송산면 천연기념물
사유지 매입 체계적 정비

[당진]당진시가 송산면 삼월리의 천연기념물 제317호 회화나무 주변을 매입해 사유지 정비와 공원화를 추진한다.

삼월리 회화나무는 조선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행이 중종 12년(1517년) 관직을 그만두고 송산면 삼월리에 내려와 집을 지으며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진다.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삼월리 회화나무는 매년 영양제 투입

과 모니터링을 해왔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주변에는 개인 농기구를 비롯한 가정집도 있어 방문객 관람이 불편했던 것. 당진시는 회화나무 정비사업의 기초 단계로 나무가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올해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나영/당진신문 djnews@hanmail.net

서천군 3회 연속 생태관광지역 지정

[서천]서천군은 지난해 시행한 생태관광지역 운영 및 지정 평가에서 금강하구 및 유부도가 3회 연속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는 2013년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2016년 두 번째 선정에 이어 환경부의 2019년 평가에서도 연속 지정됐다. 유부도는 서천갯벌과 함께 2020년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생태관광을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금강하구에는 겨울이면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와 쉬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서천군 제공



“행복한 청정 미소를 선물합니다”

더 행복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단미소

에어컨 청소 설치가 주 업무
중우한교민 머문 시설 소독 봉사
“취약계층 마스크 후원부터 나누고 환원하는 일 기쁨”



단미소 직원들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고 있다.

[당진] 공기 조화로 건물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 만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단미소가 자처하고 있다.

단미소는 지난 2년 전 충남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일하고 난 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짓는 행복한 미소’라는 뜻의 단미소는 그 이름이 뜻하는 만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공기조화를 돕는다.

천장형 에어컨 설치를 비롯해 에어컨 청소가 주 업무다. 이밖에도 전열교환기와 컴퓨터 재활용, 냉난방기와 가전제품 회수업을 하고 있다.

박상길 대표는 “오존층 파괴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냉매를 회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냉매회수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단미소는 지역 환원사업과 봉사도 적극적이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머물렀던 아산의 인재개발원 소독을 진한 바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당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마실노인복지센터, 당진시 노인복지관에 마스크를 후원했다. 박 대표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대전의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당진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에 시작해 단미소를 2년 남짓 운영해 온 박 대표는 나누고 환원하는 좋은 일을 위해 시작했지만, 행정적인 어려움에 번번이 부딪히곤 했다. 기술자 출신인 박 대표는 회계업무 등은 익숙치 않았다.

하지만 혼자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인력이 늘어 8명이 함께 하고 있다. 그는 “혼자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구성원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는 정착 단계”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더 많은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미/당진시대
d911112@naver.com

주민자치 어플 ‘우리동넷’ 마을-주민 징검다리 역할 톡톡

당진시청 김철한 주무관 개발



[당진] 전국 유일한 온라인 주민자치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을 제작한 당진시청 김철한(사진) 주무관. 주민자치 업무를 맡으면서 동네의 다양한 소식과 참여를 공유하기 위해 ‘우리동넷’을 만든 장본인이다.

행정에서 마을 소식 및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주민의 관심분야에 따라 행정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주민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제보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플랫폼이다.

김 주무관이 이 업무를 시작한 2018년 당시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총회를 도입했다.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작된 것.

김 주무관은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과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총회에 참여해 우리마을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구상하고, 구상한 사업을 더 많은 주민들 앞에 공론화 시켜서 전자투표를 통해 동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행된 주민총회에서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한다.

때 마침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한 김 주무관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마을 의제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두 달 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우리동넷’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본격화됐고, 올 2월부터 드디어 운영을 시작했다.

김철한 주무관은 “그동안 일부 주민들만 참여했지만,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다”며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라는 점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뿌듯함을 말했다.

지나영/당진신문
djnews@hanmail.net

명품품바 ‘버드리’ 흥성에서 분출하다

‘버드리’ 전도사 조성숙 씨 열혈 실버세대 흥불어넣는 청량제로

[홍성] 공연계에서 최근 복고풍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장터의 흥을 돋우던 품바를 대형 무대 콘서트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다.

디지털 대중문화시대에서 소외돼 갈 곳 없는 7080 실버세대의 문화적 욕구가 분출된 것으로 최근 트로트 열풍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품바 공연을 선보이며,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구수한 입담으로 열혈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버드리’식 공연을 흥성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 말하자면 ‘버드리’가 선보이는 국악 연주법을 터득한 조성숙(사진) 씨가 흥성에 학원을 연 것.

“경쾌한 음악에 양팔을 크게 움직이며 울동과 함께 온몸으로 장구를 치며 내는 소리가 좌중을 장악하는 버드리식 장구타법 공연은 모르고 처음 접하



는 사람들도 넋을 잃고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노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던 조 원장에게 ‘버드리’는 한여름 청량제였다. 어느새 ‘버드리’의 열혈 팬이자 전도사를 자처할 정도가 됐다.

유튜브를 통해 2016년 어느 날 ‘버드리’라는 사람이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됐다. 고향화 사회이다 보니 노인들이 오래 사는 모습을 보게 됐고, 노년을 좀 더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때 노래하면서 장구를 치며 공연하는 ‘버드리’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버드리’의 매력에 빠진 조 원장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즉시 실천에 옮겼다.

홍성읍 흥고동 한 건물에 연습실을 임대해 당시 6명이 모여 음향시설과 거울 등을 설치하고 선생으로 ‘버드리’ 동생 ‘버찌’를 모셨다. 매주 일요일마다 6개월간 속성으로 필요한 타법을 배웠죠. 처음엔 5가지 장단을 하나씩 배운다. 그러다가 ‘버드리아카데미’ 이름으로 지난해 4월 정식으로 개원했다.

‘버드리’와 ‘버찌’는 자매지간으로 최현숙 씨와 최현미 씨의 예명이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마땅한 취미생활을 찾지 못하는 노년에게 ‘버드리’식 장구연주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경미/홍성신문
rlarudal4767@daum.net

부부공무원, 넷째 출산 “행복해요”

청양군청 직원...온 마을 경사군은 양육비 1000만원 등 축하

[청양] 청양군청 산하 부부 공무원이 넷째아이를 낳아 공직사회는 물론 온 마을에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본청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정승호 씨와 정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경진 씨 부부는 지난 13일 건강한 여아(3.8kg)를 출산하는 경사를 맞으며 슬하에 네 딸을 두게 됐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넷째까지 낳게 되었다는 부부는 딸뎌이로 양육의 어려움이 크지만, 가족과 주위의 도움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청양군의 출산장려정책도 아이들

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군은 넷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지원금 1000만원과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산모도움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무료 산전검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김경진 씨와 함께 근무하는 김대수 정산면장은 “딸뎌이 공무원으로 육아의 어려움이 클 텐데도 넷째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참으로 고맙다”면서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배려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사서들의 서재



(이동학 / 오도스 / 2020)

쓰레기,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가

요즘 쓰레기를 버리러 수거장에 나가면 플라스틱을 담은 자루가 가장 많이 보인다. 온갖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다 썩지도 않는 탓에, 옛날 같았으면 유리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안경알이나 음료수 통 같은 물건들도 어느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린다. 쓰레기통에 넣거나 수거장에 내놓은 플라스틱은 어디론가 사라지지만, 아마도 수거 업체에서 잘 처리해 주었을 것

이다. 하지만 쓰레기 재활용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7년 중국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자, 그 여파로 2018년 국내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여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마다 쓰레기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다.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쓰레기에서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발견되어,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나간다. 큰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거대한 원을 그리며 흐르는데, 이 원의 안쪽에는 바닷물이 천천히 흐르는 탓에 온갖 물질들이 모여든다. 요즘은 지구 곳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이루는 바람에, 그곳에 살던 동물들이 쓰레기를 삼키거나 플라스틱 그물 등에 몸이 끼어 죽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쓰레기책’은 청년 정치인 이동학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쓰레기가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고 쓴 책이다. 매일 지구 곳곳에서

온갖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도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들은 어딘가로 흘러들어가 오늘도 지구를 아프게 만든다. 지은 이 이동학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이 쓰레기의 순환을 멈추자고 호소하고 있다.



조 한 서
충남도서관 사서

우리지역 일꾼을 만나다

충남도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지역의 일꾼들이다. 충남 도정신문은 제11대 도의회 42명의 도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각자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

김득응 의원(천안1)

농부 출신 농업·농촌 활성화 주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기반 조성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나=“유일한 농부 출신 의원으로서 농민의 대변인 역할에 주력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이 처한 현실과 농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장 최근엔 도내에서 탄생한 우리나라 대표 딸기 품종인 ‘설향’ 신화를 잇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품종을 육성·개발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꼭 도입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농업은 식량안보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만큼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자연재해 같은 수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보니 농민들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해야 한다. 이는 ‘농업직불금’ 정책이 보조 역할이 아닌 우리 농업의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 상황에서 충남도 내 전체 농민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직불금제라는 것이다. 도내 농민들은 직불



금으로 2000평당 60만~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유럽과 비교하면 50분의 1, 일본의 20분의 1 수준이다.”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안정적인 물 공급이다. 천안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자체로,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상수도 관로가 각 가정까지 인입되는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보니 노령의 가구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에 보급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먹는 물은 인간의 생존과 연관있는 만큼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이다. 상수도 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인입비용 지원 등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 학생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복지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학생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장애인·미혼모 살기 좋은 충남 만든다”

황영란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정비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정 노력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나=“장애와 비장애의 삶을 경험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2007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 복지정책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 과정이 없었다. 특히 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도지사 지원사항으로 자립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지역사회 생활을 경험해 보는 ‘체험홈’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립생활주택제 운영,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장애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는 등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았다.”

임기 내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장애인 탈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꾸준히 변하고 있는 만큼 탈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급돼 온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 장애인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늙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급한 지역 현안은=“도내엔 장애인만을 위한 건강검진센터가 없다. 장애인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병원도 있지만 장애인 전용 의사나 의료기구를 별도로 갖춘 장애인화건강검진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엑스선 촬영(X-ray) 같은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척수장애로 하반신 혹은 전신마비 장애인의 경우는 별도 의자에 옮겨 앉을 수 없었던더러 촬영 침대에 올라가는 것조차 어렵다. 치료치료 역시 단국대 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지만 매년 먼 곳까지 왕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다. 외부 편의시설은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임기 동안 도내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속도 내야”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3호이자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인 지속가능한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의원은 “8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굿드레’와 대형마트3사와 전국 농협농산물 유통센터 등을 통한 노하우는 친환경유통, 직거래물류, 지역가공, 시민교육체험관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효율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코로나19로 각종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당도와 모양 등 품위 높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해 약속과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출 위주의 자금 지원방식은 빚으로 남기에 고용지원과 지방·법인세 감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급”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4)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 중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2위며 이 중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7만 462톤)를 차지한다”며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인종해주는 DPF 지원사업에 도비도 함께 부담하고 도내 DPF 설치 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혁신도시 추진기획단” 제안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선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충남 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균특법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가 백년대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느 기관과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심층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과 관이 힘을 모았듯 다시 한 번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실현해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적극적 교육행정 추진과 보건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일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지만 충남의 보건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엔 하루 빨리 배치하고 과대 학급의 경우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은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이뤄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와 연계성, 지역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는 시작일 뿐 오는 7월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이탈 방지 토대 마련



충남도 내 우량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내 우량기업 또는 도내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소재 기업 또는 도내로 소재지를 옮기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백제문화제 지원조직 정비 추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백제문화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 명칭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재단’으로 바꾸고 사무기구 설치도 정관에 따라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근거법률은 기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재단에 대한 도시사의 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모두가 살고싶은 농어촌 기반 마련



김기서 의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농업·환경 관련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 민관 협력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관광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원 보전 및 분야별 활성화, 기관·단체 협력,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사할린 한인, 역방문 가능지역 넓어진다



김한태 의원

국내에 영주 귀국한 충남지역 사할린 한인의 역방문 가능지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역방문 가능지역과 항공료 지원범위를 ‘사할린’에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역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범위를 사할린으로만 국한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 조사 결과 사할린 외에도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등의 도시를 비롯해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역방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할린에서 독립국가연합으로 역방문 지역범위가 확대되면 ‘제2의 이산’ 아픔을 겪는 사할린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미디어 발전 기반 마련



오인환 의원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영 여건 약화나 독자의 무관심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책무와 지원사업 및 기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지역미디어는 디지털 방식에서의 뉴스 소비 전환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미디어에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당면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유통산업 체계적 지원 시동



장승재 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섰다.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유통산업발전 지원 ▲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협력사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 의원은 “충남의 유통산업 고용비율은 도내 전체 산업 종사자(92만 8259명) 대비 15.8%(14만 7098명)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관련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17만 2242개 중 33%(5만 7137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악취 잡는다”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계룡)은 최근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반 조성



안정현 의원

충남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정현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도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해 오던 관행을 조례계정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일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자치단체의 연도간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계획적·#12539;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체사업에 재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업유산, 도민이 직접 지정·관리한다



이계양 의원

충남도민이 지역농어업유산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전통식체계와 경관, 생물다양성 등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민의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신청 ▲위원회 설치·운영 ▲자금지원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2017년 충남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내엔 한산 모시농업, 청양 다랭이 논 등 16건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진 합덕제처럼 도내 가치 있는 농어업유산을 잘 관리해 국가를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망’ 구축 추진



조승만 의원

충남도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급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과 사업,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 이동 보조기구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경우 본인 안전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치 폐농약 체계적 관리 도입



김명숙 의원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난 후 일정한 기준 없이 방치 또는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농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가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제도화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폐농약류 수거함을 제작·보급이 가능해지며 농업협동조합장과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수거·처리, 시책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안전울타리’ 조성



여운영 의원

여운영 의원(아산2)은 최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 및 복지를 위해 교육청, 청소년지원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목적 변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세분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구체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근거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 보장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과 충남의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자와 중단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육구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과 충남의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자와 중단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육구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피해 대폭 줄인다



이명우 의원

충남도의회가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비해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명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이상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폭염 안전교육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마다 폭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붕녹화, 냉방물품 보급, 온열질환 의료비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충남도는 특히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무연고자 장례업무 지원방안 추진



지정근 의원

도의회는 19일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에서 전담해 온 무연고자 장례업무에 대해 추가 지원 시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현재 충남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비는 절반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며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와 초고령사회 진입속도 차이로 도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무연고자 사망과 고독사의 증가로 시신 안치비용과 행정적 수요가 증가해 도 차원에서 시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향후 공영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 행·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민-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하자”

의료진 격려 및 위문품 전달
문화복지위·안전건설소위 등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김연 위원장)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애쓰고 있는 도내 4개 의료진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13일 서산의료원을 시작으로 16일 홍성과 공주의료원, 17일 천안의료원 순으로 이뤄졌다.

위문 인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원활한 진료업무 수행을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3~4명으로 최소화 했다.

의원들은 각 의료원에서 감염병 확진환자 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의료진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밤낮없이 의료원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도내 의료원을 방문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소속 의원들도 지난 13일 충남도 본청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과 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도의원들은 도청 지하에 마련된 방

역대책상황실을 둘러보며 도내 확진환자 현황 및 방역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염병 확진환자 발생 차단과 역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119광역기동단을 찾아 격려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이어 119광역기동단으로 자리를 옮겨 코로나19 관련 소방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과 대구로 지원 나간 소방대원들의 무사 복귀를 위해 현장 상황과 근무 여건에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민관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헤쳐 나가

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본청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에는 4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대구로 지원 나간 소방공무원은 25명, 소방차량은 총 13대(구급8, 제독4, 급식1)다.

“혁신도시 도내 균형발전 고려해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상징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입지 선정 시 내포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1곳 이상 공동 혁신도시 후보지를 발굴·지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기존 지역을 보면 도청 또는 광역시청사가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사례는 전국 10곳 중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고 단일이 아닌 완주군과 공동 지정”이라며 “시·도청 소재지는 행정과 상업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시·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는 이른바 ‘도청 이전특별법’을 적용받아 기관이나 기업 이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상태”라며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 시민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중복·집중 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 1곳 이상 공동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 제안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피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으로 집중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한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

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기간을 정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면 단기간에 지급된 자원이 도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숙 의원



이공휘 의원

“도유재산으로 개인재산증식 안돼”

충남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인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문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유재산 소재 무허가 축사는 모두 44농가 79필지(6만9572m²)로 이 중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2만1586m²)로 집계됐다.

특히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안면도)이 23농가 35필지로 전체 84.5%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6678m²)에 불과 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전익현 의원

“미뤄진 영농교육 대책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집합·대면 영농교육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감염병 사태가 벌

어지면서 농민에게 필수적인 영농교육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농기계교육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농기계계를 빌려간 농민은 기계사용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직불금과 귀농귀촌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수교육부터 소형농기계 면허증 교육까지 줄줄이 연기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옥동 충남도의원 지병으로 별세

담낭암으로 1년 투병 생활
한글 미해득·난독증 개선 앞장



한옥동 의원

충남도의회 한옥동 의원(천안5)이 지난 1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

한 의원은 약 1년 전부터 담낭암으로 투병하다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195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원대를 졸업한 그는 1981년 전남 보성 율어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를 시작으로 제26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천안청수고

교장 등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명예퇴직 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투병 중에서도 한글미해득자 관별과 난독증 전면 검사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끌어 냈고, 충남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3분과 위원장을 맡아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고인은 지난 15일 천안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코로나19 ‘추경안’ 원포인트 심사

소상공인·운수업체 등 대상
긴급경영지원금 추경안 심사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2일 간 긴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긴급 임시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민생경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집

행부 요청에 따라 열기로 했다.

임시회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심사된다. 또 충남도 상반기 추경안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도민의 어려움을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